

■■■■■■ **목 차** ■■■■■■

I. 연수 개요	2
II. 연수 국가 개요	3
III. 연수 내용	5
IV. 연수 총평	11

I 연수 개요

1. 연수기간 : 2023. 5. 23.(화) ~ 5. 27.(토) 3박 5일
2. 연수국가 : 아랍에미레이트(두바이 및 아부다비)
3. 연수목적 : 가평 음악역 1939 음악분수 설치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4. 연수인원 : 6명

소 속	직급	성 명	비고
가평군청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체육시설팀장	신훈식	
	주무관	노기영	
	주무관	권도환	
가평군의회	의원	최원중	
	주무관	현주황	

5. 연수일정

일자	출발지	도착지	주요일정	비고
1일차 (5. 23. 화)	인천	두바이	▶ 인천 국제공항 출발(10시간 30분소요) ▶ 두바이 국제공항 도착후 숙소	
2일차 (5. 24. 수)	두바이	두바이	▶ 부르즈 할리파 음악 분수쇼 견학	
3일차 (5. 25. 목)	두바이	아부다비	▶ 아랍에미리트 한국 문화원 견학 및 토론 ▶ 세이크 자이드 그랜드 모스크 견학 ▶ 골드수크(황금유통시장) 견학	
4일차 (5. 26. 금)	두바이	두바이	▶ 팜 주메이라 견학 및 모노레일 시승 ▶ 알세르칼 예비뉴(문화의 거리) 견학	
5일차 (5. 27. 토)	두바이	인천	▶ 두바이 국제공항 출발 - 인천공항 도착 후 가평으로 이동	

II 연수국가 개요

아랍에미리트연합 개관

- 국 명 :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 연방창립일 : 1971. 12. 2.
- 수 도 : 아부다비
- 면 적 : 83,699km²(한반도 면적의 약 37%, 전 국토의 97%가 사막)
- 인 구 : 약930만 명(외국인 89%, UAE국민 11%)
- 종 교 : 이슬람교 96%, 기독교 및 힌두교 4%
- 정부형태 : 대통령 중심 연방제
- 연방 행정구역 : 7개 에미리트로 구성
 - ※ 아부다비, 두바이, 샤자, 아즈만, 움 알콰인, 라스 알 카이마, 후자이라
- UAE 경제의 주요 특징
 - 정치적 안정, 친기업적 환경, 주변국 시장 접근 용이성 등 매력적인 투자 환경 보유
 - 실물경제 부문은 각 에미리트별로 자치권 인정
 - 소비 및 재수출 중심의 무역

● 방문도시 위치



두바이 현황

- 두바이는 UAE(아랍에미리트) 내 7개 토호국 중 두 번째 규모
- 면 적 : 4,114km²(서울특별시의 약 7배)
- 인 구 : 약 347만명(2021년 기준)
- UAE 전체 GDP의 25%를 차지(USD 1,030억불)
- GDP 중 非석유부문의 비중이 93%에 달할 정도로 석유 의존도가 낮음
- 대부분의 자원이 아부다비에 집중되어 있고 두바이는 부존자원이 빈약함
- 탈석유산업정책으로 무역, 관광, IT/미디어, 금융산업에 적극 투자
- 1인당 국민소득 : 2만 9천달러(단 두바이 국적자의 경우 5만 달러 상회)

아부다비 현황

- UAE의 수도이자 대통령 및 연방정부 소재지
- 면 적 : 77,700km²
- 인 구 : 약 92만명
- 막대한 양의 오일가스 보유 및 관련 산업 발달
 - 오일, 가스 매장량 각각 세계 5위 수준
 - ※ 오일 : 922억 배럴(UAE 전체 매장량의 94%)
 - ※ 가스 : 5조 6천억 입방미터(UAE 전체 매장량의 93%)
- 최근 비즈니스, 관광, 물류 중심지로 급부상
- 막대한 오일머니 수혜(UAE내 석유생산 비중 92%)
- 향후 두바이에 버금가는 비즈니스, 관광, 물류 중심지로 성장 전망

Ⅲ 연수 내용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부르즈 할리파와 음악분수(5.24. 2일차)

- **“부루즈 할리파”** 는 두바이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2009년 10월 1일 완공되어 다음 해 1월 4일 개장하였으며, 높이 828미터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알려져 있으며, 완공 이전 이름은 “부르즈 두바이”이었으나 아랍에미리트의 대통령인 “할리파 빈 자이드 알나하얀”의 이름을 본 따 현재의 “부르즈 할리파”로 개칭하였다.



- **부루즈 할리파 앞 인공호수에 조성된 음악분수**는 조명 총 6,600개, 컬러 프로젝터 25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최대분사 높이가 약 500미터로 미국의 라스베이거스 음악분수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음악분수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 현대 아랍음악부터 전세계 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 맞춰 분수 쇼를 선보였으며, 그 음악의 리듬과 박자를 타며 하나의 공연을 위해 분사되는 물의 양은 약 8만리터에 달한다고 하며, 분수 뒤편에 위치한 부르즈 할리파에서 나오는 LED프로그래밍을 통해 표현하는 기술까지 더해 화려함을 극대화하였다.



문화교류의 창구 한국문화원에 방문하다(5.25. 3일차)

- 주 아랍에미리트 한국문화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2016년 3월 개원하여 아랍에미리트에서 한국의 문화(한국어, 한식, K-pop)를 알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양국 문화 교류에 창구역할을 하고 있었다.
-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잘 마련되어 있었으며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태권도, 한식강습으로, K-POP 열풍으로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현지인들의 여러 프로그램강좌 문의가 빗발친다고 한다.



세계 제일의 금시장 골드수크(5.25. 3일차)

- 현지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 금(金) 교역의 중심지였던 두바이의 “골드수크”를 방문하였다. ‘수크’는 시장이란 뜻으로 이곳 입구부터 800개가 넘는 상점이 오밀조밀 모여 있는 세계제일의 금시장이라고 한다.
- 과거에는 전세계 금의 3분의 1가량이 거래되었다고도 하며 이곳에 볼거리 중 하나인 기네스북에 오른 거대한 금반지는 성인 남성의 몸 크기 정도로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고 있었으며,
- 또한, 이곳을 지나 각종 향신료와 패브릭, 공예품, 전통패션 아이템을 판매하는 “올드수크”까지 구경할 수 있어 옛 전통문화와 삶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기회였다.



골드 수크 입구



기네스북에 등재 된 금 반지



이슬람의 성지 셰이크 자이드 그랜드 모스크(5.25. 3일차)

- 셰이크 자이드 그랜드 모스크는 아랍에미리트 초대 대통령 “셰이크 자이드”가 통치 후반기에 고안한 건축물로, 80개의 대리석 돔으로 이루어져있으며 마케도니아 공화국에서 공급된 9만톤 이상의 순백색 대리석을 사용하여 만들어졌다.
- 포인트로 복잡한 꽃무늬와 내부에는 칼리라는 유명 디자이너가 제작한 카펫이 깔려있었으며, 그 크기가 약 5,680평방미터이며, 또한, 천장에 매달려있는 각기 모양이 다른 샹들리에에는 크리스탈과 금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 이곳은 종교적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복장 규칙을 따라야 했기에 여성 같은 경우 반드시 스카프나 히잡을 착용하고 입장이 가능하였다. 이슬람 문화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이나마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



바다위의 인공섬 팜 주메이라(5.26. 4일차)

- “팜 주메이라” 는 두바이 시가지 서쪽 “주메이라”지역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정부소유의 기업 나킬이 오일머니의 힘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 하여 바다위에 모래를 부어 만든 인공섬으로, 팜 아일랜드(팜 주메이라, 팜 제벨 알리, 데이라 아일랜드)의 3개 섬 중 하나로, 팜 아일랜드에서 최초로 만들어졌다.
- 도로와 터널은 물론 팜 주메이라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모노레일과 같은 대중교통도 갖춰져 있어 편리하게 방문이 가능하였으며, 또한, 최고급 리조트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80개 이상의 최고급 레스토랑과 라운지 등 다양한 명소들이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 중 하나이다.
- 또한 요트나 스피드 보트를 타고 “팜 주메이라” 주변을 투어하는 코스도 인기가 있었으며, 우리 연수단은 모노레일을 통해 전망대에 도착 후 “팜 주메이라” 건설 과정을 영상으로 시청하면서 팜 주메이라 역사 및 초대형 인공섬을 추진한 당시 통치자 셰이크 무함마드의 마인드를 알 수 있었다.



팜 주메이라 전망대



전망대에 내려다 본 팜 주메이라 전경

산업지대에서 문화예술거리로 거듭 난 알세르칼 에비뉴(5.26. 3일차)

- “알세르칼 에비뉴” 는 갤러리, 개인 부티크, 힙스터 카페 등으로 이루어진 두바이의 대표 예술지구로, 옛 산업지대였던 알 쿠오즈 지역은 각종 창고와 공장 건물로 이루어진 일부를 갤러리, 부티크, 사진 스튜디오, 공연장으로 탈바꿈하면서 두바이에서 가장 역동적인 문화예술의 허브 지역으로 새로운 옷을 입었다.
- 이 지역의 중심은 지역 작가들의 작품이 가득한 현대미술 갤러리가 있는 ‘알세르칼 애비뉴(Alserkal Avenue)’이다. 독립영화 상영회, 미술 강습, 다양한 패션 브랜드의 런칭 행사, 야간에 열리는 팝업 이벤트 등 즐길 거리도 많았다.
- 두바이의 창업가들이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더 코트야드(The Courtyard) 커뮤니티도 들려볼 만하다. 1990년대 생긴 곳으로, 다양한 건축양식으로 구성되는 건물만 10채에 이른다. 건물 내부에는 핸드메이드 제품매장과 예술 갤러리, 소규모 공연장 등이 있었다.



IV 연수 총평

◆ 부루즈 할리파 음악분수

1) 방문평가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화

- 최첨단 하드웨어를 갖추어 놓고 음악과 조명, 분수, 부루즈 할리파 건물 자체에서 나오는 LED조명, 레이저와 조화시켜 전통음악부터 007영화 OST등 다양한 음악을 가미한 공연으로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음. 또한 나라 특성상 물을 구하기 쉽지 않아 바닷물을 정화하여 담수로써 사용점은 물 절약 측면에서도 인상적이었음.

2) 시사점 요약

▣ 지역 특성에 맞는 소규모 시설로서의 부지검토

- ☞ “부루즈 할리파” 같은 대규모 분수시설을 우리 군에 접목하여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우리 군 지역특성에 맞는 적정규모의 시설로서 접근성, 부지확보 문제 등을 고려한 위치(음악역, 철도공원부지, 자라섬 등) 선정과 음악분수 설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 수익 창출 여부, 향후 운영·관리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위 내용과 관련 음악분수 설치 타당성 용역 추진(소요사업비 2023년 2회추경 반영)

▣ 우리 군의 경우 음악분수 설치 시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필요

- “부루즈 할리파 분수쇼”의 경우 운영 시스템으로 로컬 형식 제어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오프라인으로 데이터 입력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각 기계실에서 각기 제어를 하며 컨트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우리 군의 경우에는 고도의 전문 지식인이 필요한 로컬제어 시스템보다 전문지식이 없어도 쉽게 사용 가능한 자동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 디자인을 구성 및 운영·관리 개최하는 축제 등 상황에 맞는 다양한 컨셉으로 전환이 가능하게 하여 인력 및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됨.

음악분수 민간 이벤트 대여

○ 음악분수를 운영하지 않는 날 개인부터 단체까지 복잡하지 않은 대여조건으로 개방하여 다양한 군민들이 이용가능하게 만들어 SNS(인스타그램등), 인터넷 블로그 등 자유로운 광고효과를 통해, 수익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지속성 있는 프로그램 도입·운영 필요

○ 봄, 여름, 가을뿐만 아니라 분수를 사용하기 힘든 겨울에도 빛과 음악의 조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볼거리를 발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SNS나 이메일을 통해 관람객들의 이용만족도나 불만요인을 항시 체크하며 문제점 보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

붙임 부루즈 할리파 음악분수 시설 및 운영현황 1부. 끝.